

죽음의 꼬리표를 떼주는 자가 구세주

나라는 의식이 없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영

이 세상에 온전하고 온전한 것이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그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지식, 온전한 말씀, 온전한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지식이 들어오고 완전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완전한 마음인데, 완전한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 진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완전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는고로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면서 병이 들려야 할 수가 없고, 죽으려 죽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묘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오염만 안 되면 완전해지면서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하는 것이므로 그런대로 오늘날 이 사람이 온전한 말씀을 해 주고, 온전한 영을 부어주고 있는데 그 완전한 영의 증표가 바로 이슬인 것입니다.

피가 써서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그 이슬, 완전한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있는데 그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아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지만 완전한 말씀을 들

어봐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죽지 않는 비결의 학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의 학설이라는 것은 죽는 원인을 밝혀주면서 죽는 원인을 제거하는 비결이 바로 죽지 않는 비결이요, 죽지 않는 학설이 되므로 정확하게 죽는 원인을 사람이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의학박사들도 종교가들도 피가 써서 사람이 죽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는 자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구세주의 사명

하늘나라를 이루려면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하는고로 못쓸 놈의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버려야 마땅한 인간을 깨끗하게 보수를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새로운 심령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세주는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만들어서, 어떠한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 구세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죽을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는 게 구세주인 것입니다. 인간



구세주 조희성님

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고로 그것을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그 마귀만 죽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심판을 해서 마귀가 지은 죄를 갖다가 하늘의 자식들에게 책임전가를 시켜서 벌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왕초 마귀

마귀가 죄를 짓게 했고, 마귀가 범

죄를 하게 하고로 그 마귀새끼만 죽여 버리면, 그 마귀새끼만 없애버리면 죄가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재를 모르는 멍텅구리들이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들 죄의 소재는 마귀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에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죄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영이 바로 선악과요, 선악과가 바로 나라의 의식이요, 나라의 의식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그런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욕심 자체가 죄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라의 의식이 바로 죄요, 죄는 마귀종이라고 하였은즉 바로 마귀종이 마귀새끼요, 마귀새끼가 마귀인고로 욕심이 마귀요 죄가 되는데 나라의 의식이 욕심 부리는고로 나라의 의식이 바로 왕초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이 바로 나라의 의식인데 나라의 의식이 죄라는 걸 모르는 것은 그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나라의 의식이 바로 마귀요, 나라의 의식이 죄라는 걸 알고 나라의 의식이 바로 죽음의 요소라는 걸 알았는데 그 나라의 의식을 버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고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나라의 의식을 버리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면 나라의 것을 하루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 버리는 동안에는 바로 마귀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종이 아주 뭐 고개에다 힘주고, 내가 과거에 뭘 했다 하고 으스스대고 그러는데 마귀종이 까불어 봤자 마귀 종 상태는 바로 죽어 있는 상태요, 언제든지 무덤 속에 들어갈 후보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생의 마음을 먹으면 영생

그래서 오늘날 그 죽음의 꼬리표를 떼어 주는 자가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났으니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꼬리표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맹추마냥 마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결국은 죄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참말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나라의 주체 의식이 죽음의 요소요, 나라의 주체의식이 바로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을 포로로 사로잡은 마귀새끼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종교라고도 학문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늙었다. 늙었다.” 하면 늙지만 “나는 젊었다. 나는 아직도 싱싱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바로 그 죽음의 요소가 소변,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먹느냐가 문제인데, 죽을 마음을 먹으면 죽는 것이요, 영생의 마음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마음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은 사람 죄를 질 수 없고, 자유율법을 어길 수 없으며,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이 있는고로 나가서 전도하고 영생의 소망과 희망이 영생의 확신이 있는고로 힘차게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이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믿어지지 않거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희망이 크면 클수록 행복해지고, 희망이 크면 클수록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현실이 아무리 괴로워도 기쁜 것입니다. 그건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논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영생의 희망을 갖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1992년 3월 21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변화

인간이 존재한 이래 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그렇다고 신의 존재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까지 없다. 그 신의 이름을 과연 누가 부르고, 누가 애타게 찾는가를 알면 된다. 어떠한 짐승이 찾을 수도 없고, 지구 밖 외계인이 찾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엔 인간에 의해서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그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맥을 짚어 생각해보면 오직 인간만이 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왜 신을 찾을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왜 인간에게 신이 필요한가를 자문해보면 쉽게 납득이 가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의 거처, 능력, 성품, 모습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지금껏 억조창생이 간절히 궁구하던 그 신의 실체가 훤히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 왜 인간은 신을 찾게 되었는가? 아주 오랜 옛날에는 생존을 위협하고 괴롭고 고통을 주는 식량 주저 맹수 흉수 가뭄 전염병 죽음 등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신을 의지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그 다음에 더 발달된 생활환경과 조건, 인간의식과 물질문명의 개화로 좀 더 어렵고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경계로 인하여 신을 찾게

된 것임을 지나온 인류사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애착과 생명 보호본능은 타종족과 비교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그러므로 신을 찾고 의지하며 고통과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신

인간의 의식과 문명의 발달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에도 인간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신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와 맹수의 공격과 일종의 전염병이 무엇임을 낱알이 알게 됨으로 보다 높은 차원(지적 탐구의 본성)의 인간과 우주주의 기원, 우주만물의 탄생의 비밀, 인간의 생로병사 등등을 해결받기 위한 인간 존재 본연의 문제의 것으로 옮겨지게 된다. 전지전능성과 완전성이라는 신성의 부분을 지닌 인간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거나, 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신성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인간 본연의 문제를 궁구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신의 영역에 근접한 인간의 능력 오늘날 인간의 끊임없는 지적 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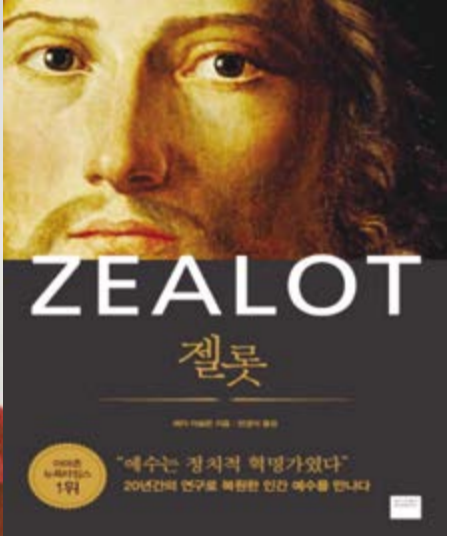


「젤롯」의 저자 이슬란 교수와 그의 한국어판 책

구열과 호기심, 지식의 축적과 문명의 발달로 과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화됨으로써 지금까지 신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하나 둘씩 인간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복된다. 이로 말미암아 신의 존재·거처·능력·형상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고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신의 본성은 무엇인가, 존재하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이 심지어 신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생명을 복제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신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고 평이하

인간이 신(神)인 이유



「젤롯」의 저자 이슬란 교수와 그의 한국어판 책

게 나열하고 고찰해 보면 의외로 그 해답은 쉽게 도출되고 얻어질 수가 있다. 오늘날처럼 인류의 의식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이기에, 그간에 알 수 없었던 신의 성품이라든지, 신의 형상이라든지, 신의 거처 신의 존재 유무 따위를 쉽게 분석하고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규명한 책 「인간화된 신」의 저자 레자 이슬란은 혁명가 예수를 그린 픽션 『젤롯』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해진 종교인문학자이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태곳적부터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었는지 풀이

하고, 선부른 예단보다는 깊은 사색을 촉구하는 글을 선보인다.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 신을 마법적인 힘을 지닌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가 10대에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신을 완벽한 인간이라고 보았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격화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 후 무슬림이 된 저자는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자 수피가 되어 ‘신은 모든 것’ 이고 ‘모든 것은 신’이라는 범신론자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인간화해 왔는지 그 역사를 다루면서 ‘신은 모든 것’ 혹은 ‘모든 것은 신’이라는 범신론을 화두로 던진다. 힌두교, 불교, 도교, 유대교, 베단타학파 등 모든 종교는 물론,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도 범신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신에 대한 종래 통념에 도전하는 도발적 메시지를 통해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해냈으며, ‘인간화된 신’이 거의 모든 종교의 핵심을 이룬다. 인간 본성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탐욕, 편견, 폭력성과 같은 부정적인 속성까지 유명해진 종교인문학자이다.”

그런데도 향간의 정통 종교라고 주장하며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모 기성

종교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신을 만들어 부르짖으며 절대 복종과 믿음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파괴와 살상과 전쟁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존철학의 선구자 니체는 당시 모든 가치 기준이었던 신에 대해 그 죽음을 선고하고(신은 죽었다!),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초인(超人)사상을 피력했다. 초인이란, “이 땅에 출생할 뿐, 하늘나라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이며, 초인은 신의 죽음을 확신하는 자이며, 영겁회귀의 사상마저 깨달을 수 있는 자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한 윤회를 거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자가 바로 초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하여 높은 도덕적 수준과 자아완성에 도달하면 결국,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사상이다. 이는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이 우리민족은 인간이 섬김과 존중받아야 마땅할 고귀한 신임을 가장 먼저 천명한 천손민족이다. 우리 민족을 스스로 높이고 자부하려는 거창한 말잔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천성적으로 어질고 의로우며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신의 성품을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본래의 신성(神性)과 신의 나라(天國)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본능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강한 선민(選民)의 자손이다.*

김주호 기자